



농어촌공사 진산지사, 청년농 협의체 간담회

✎ 박성민 | ☎ 승인 2025.03.11 16:50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.

이번 간담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과 유관기관 청년농 담당자 및 공사 담당자 등 총 10여명이 참석하여 농지은행사업 설명 및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듣고 청년농업인 농지지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다.

진주산청지사는 농지은행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23.5ha를 지원하며 청년농의 영농 정착을 이끌고 있다. 또한 올해부터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선임대후매도사업,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 등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젊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
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농업인은 “청년농에 대한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원에 감사하다. 다만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등 청년농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현실적 정책이 우선되었으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이은수 지사장은 “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에 달려있다,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사업 지원을 통해 영농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, 이번 협의체 간담회를 계기로 농업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지사 회의실에서 청년농 협의체를 구성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.사진=한국농어촌공사진주산청지사



박성민